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9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지역 SOC 사업 예산 확보 관련 건의문을 전달.

## 국내 건설근로자 평균일당 16만5천원

2016년 대비 7.6% 올라

국내 건설근로자의 평균 일당이 16만5,000원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평균 일당은 2016년 대비 7.6% 오른 16만5,299원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지난 1년간 평균 임금은 평균 3,

429만8,566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3.5% 많은 임금이다. 평균 근무일 수는 20.3일로 집계됐다.

반면 근무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 내 샤워실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샤워실이 있다는 응답은 65.3%에 불과했다. 현장에 화장실이 있다는 응답은 98.7%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세부적으로 화장실 개수나 크기가 부족하다는 답변은 52.2%에 달했다. 윤종현기자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  
해 이철규 국회의  
원에게 SOC 예산  
확보를 건의한다.

## 내일부터 370억원대 도내 시설공사 입찰

조달청, 3일간 8건 진행

22일 337억원 정동진 정비 사업

이번 주부터 한주간 강원도내 370억원대의 시설공사 입찰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22일까지 도내 8건에 373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8억6700만원 상당의 국도44호선 임천1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입찰이 실시된다. 또 같은날 정선교육지원청이 발주한 Wee센터 개축공사 입찰도 3억3600만원의 추정가격을 기초로 시작된다.

21일에는 양양군이 발주한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오색주차장 1 조성공사 입찰이 열린다. 이 중 소방공사 7억6500만원, 전기 3억9200만원, 통신 1억2600만원 등의 추정가격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또 22일에는 동해해양수산청이 발주한 337억8400만원 상당의 강릉 정동진 해변 연안정비사업의 입찰이 진행된다. 같은날 강원대가 발주한 7억1100만원 상당의 공대4호관 등 3개동 내진보강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가 발주한 3억3900만원 상당의 인제출장소 사옥 증축공사 입찰도 열린다. 신관호

# 건설노동자 평균 일당 16만5000원

2년 전보다 7.6% ↑, 한 달 20일 근무... 1년 임금은 3429만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조사

건설노동자의 하루 수입은 평균 16만5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8일 발표한 '2018년 건설 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평균 일당은 16만5299원이었다.

이는 2016년(15만3580원)보다 7.6% 오른 금액이다.

공제회는 지난 7~9월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노동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노동자의 지난 1년 임금은 평균 3429만8566원으로, 2016년(3312만6600원)보다 3.5% 많았다.

지난 1개월 동안 근무한 건설현장은 평균 1.3곳이었고 평균 근무일 수는 20.3일이었다.

건설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건설현장의 화장실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98.7%가 있다고 답했지만, 샤워실이 있다는 응답은 65.3%에 그쳤다.

화장실이 있어도 개수나 크기 등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52.2%나 됐다. 화장실이 더럽다는 응답(48.7%)과 접근 등이 불편하다는 응답(29.6%)도 많았다.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29.3%에 달했다. 수시로 받았다는 응답은 17.0%에 불과했다.

안전교육은 수시로 받았다는 응답이 85.1%로 많았고 안전장비인 안전대와 안전모를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은 각각 5.8%, 0.8%에 그쳤다.

처음 건설현장에 들어갔을 때 나이는 평균 36.6세였다. 25세 미만이라는 응답(10.5%)은 2016년(15.2%)보다 줄었고 50세 이상이라는 응답(11.8%)은 2016년(4.7%)보다 늘었다.

구직 경로는 인맥이라는 응답(85.6%)이 대부분이었고 유료 직업소개소는 9.7%에 불과했다.

직종은 단순 업무를 하는 비숙련공인 '일반공'(23.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철근공(9.9%), 형틀목공(7.6%), 미장공(6.2%) 순이었다.

권성중기자 kwon88@